소비

서울의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로 11년 4월 이후 8개월 만에 10%대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백화점 판매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2월 백화점 정기바겐세일 및 연말, 연시와 계절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판매 상품으로는 패션용품(44.4%), 식품(26.3%), 생활용품(18.0%) 순으로 나타나 백화점 판매액 증가의 주요 영향 품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용

서울의 12월 고용동향은 전반적으로 고용악화와 취업시장 난조라고 볼 수 있다. 우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하락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23개월만에 마이너스 0.5%를 기록하여 취업상황에 적신호를 보였는데 청년층의 경우 7개월간 꾸준한 증가세에서 마이너스 증가세를(-1.7%)보였으며 고령층 역시 평균(6%)을 하회하는(1.4%) 등 연령별 전반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전국과 서울의 비교에서도 2.4%p 차이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취업안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1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9%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항목으로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석유류(15.8%p)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기·수도·가스(8.6%p), 집세(5.5%p) 등의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전도시의 물가 지수가 104.8로 서울(104.6)에 비해 0.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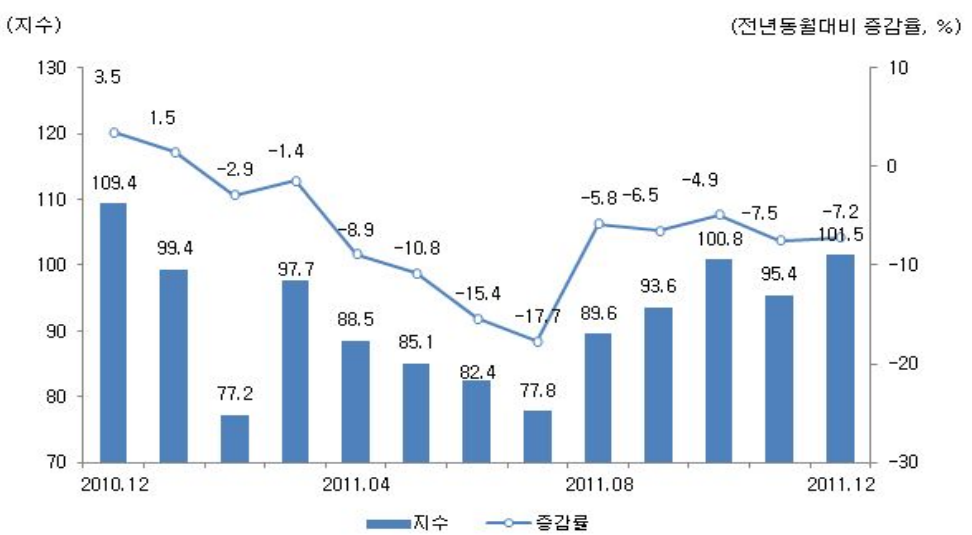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주택전세가격도 아파트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2년 11개월만에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강북과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매물이 적체되면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격은 주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층에 맞는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생·산 Ⅰ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감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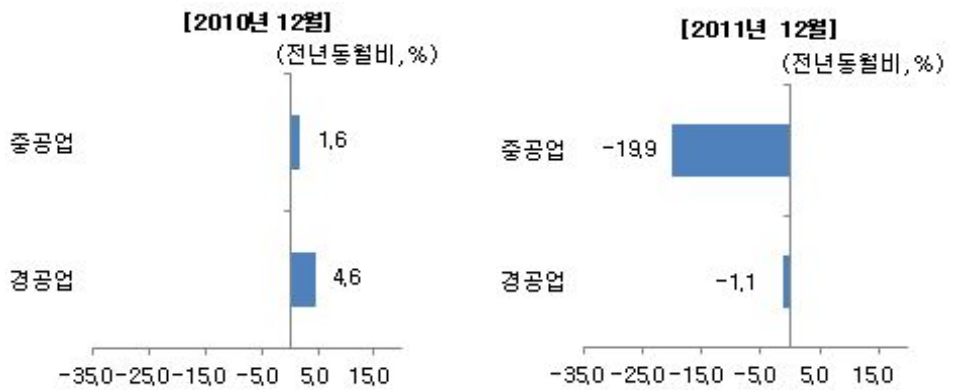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는 104.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9.9%,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9.0%)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51.7%), 섬유제품(-29.6%), 전기장비(-28.4%) 등에서 감소
-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10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산업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1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전월대비로는 0.9% 감소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15.5%), 기계장비(-4.6%)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2.5%), 자동차(10.7%) 등의 호조로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7.5%), 운수(-1.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5.1%) 등 1.6% 증가

| 출하 · 재고 순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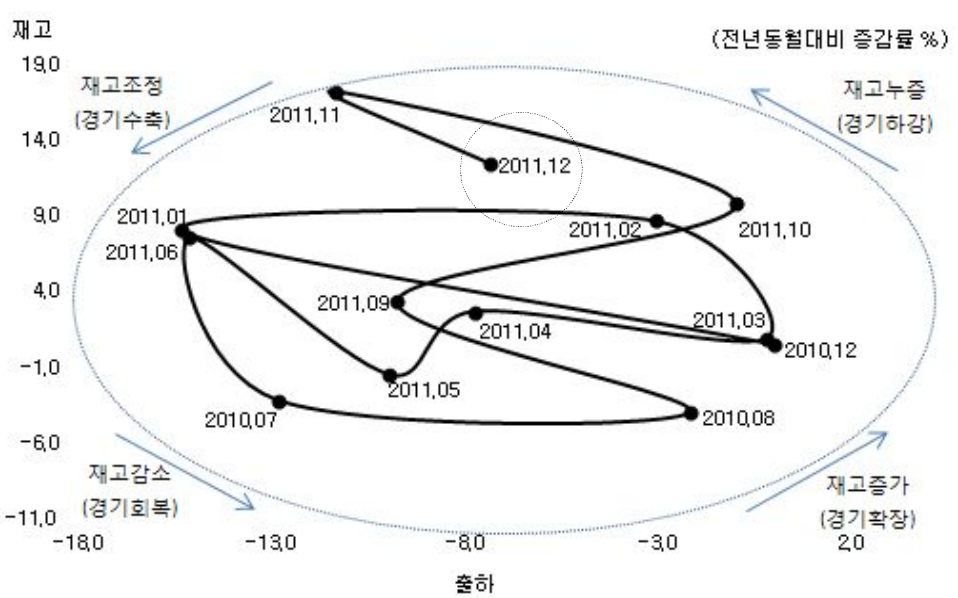
서울의 12월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의 11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및 재고 감소

-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179.5(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계장비, 1차 금속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가죽 및 신발 등에서 증가
- 출하 및 재고 감소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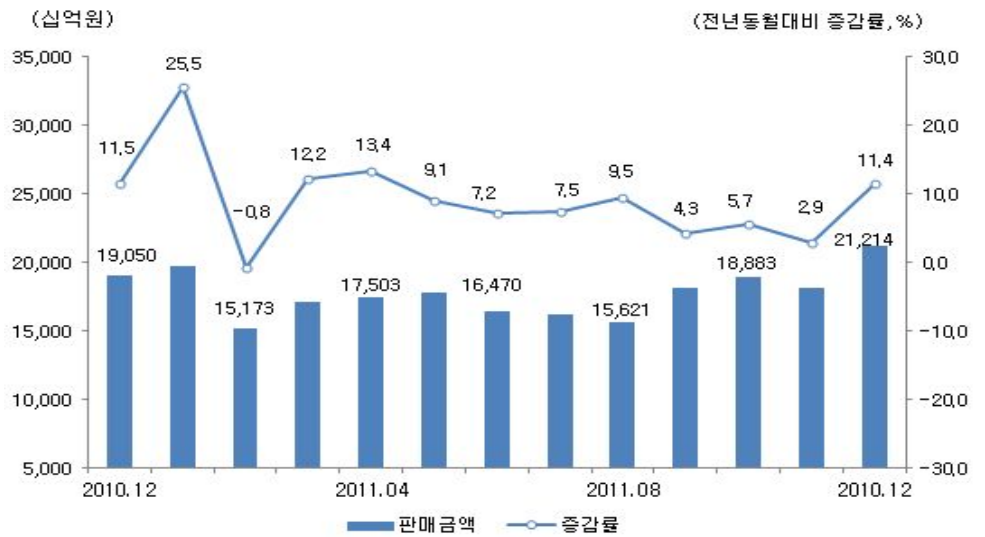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1,214억원로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3.2%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크리스마스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과 연말 세일과 같은 행사 등으로 인해 백화점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의 12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1위

-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44.4%)이며, 식품(26.3%), 생활용품(18.0%)인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8.6%인 8천178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2권역(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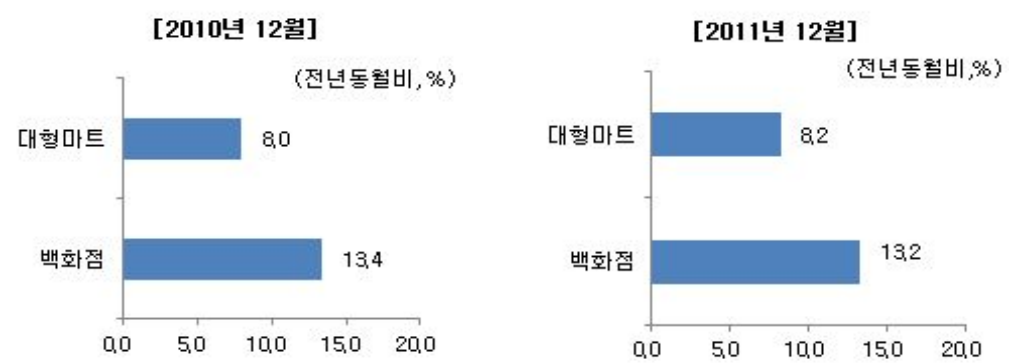
■ 전국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6.5% 증가, 대형마트는 4.1%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0.7%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1.0%,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2%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전 판매 추이

| 경·제·활·동·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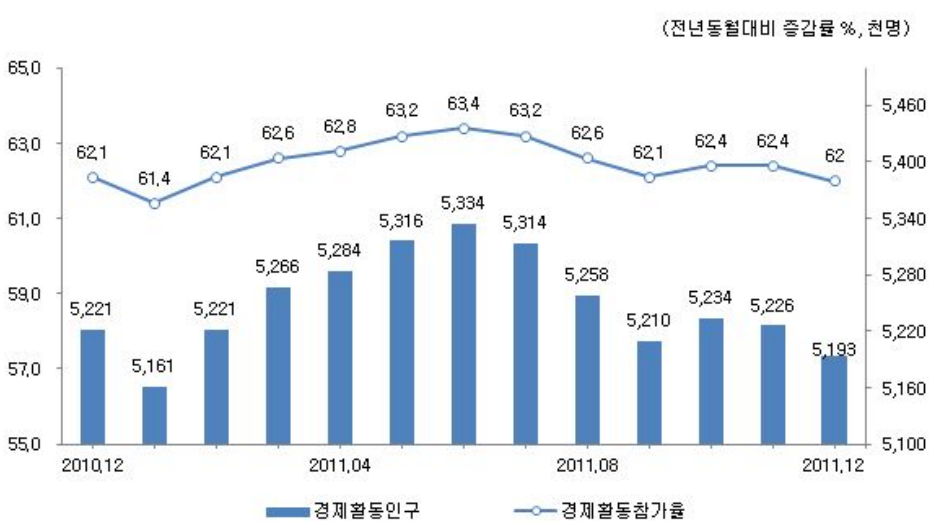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12월 15세 이상 인구는 8,3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0.4%)이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5,1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천명(-0.5%)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1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1%)이 감소

■ 전국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2월 15세이상인구는 4,127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1천명(1.2%)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48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2천명(1.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48.5%로 0.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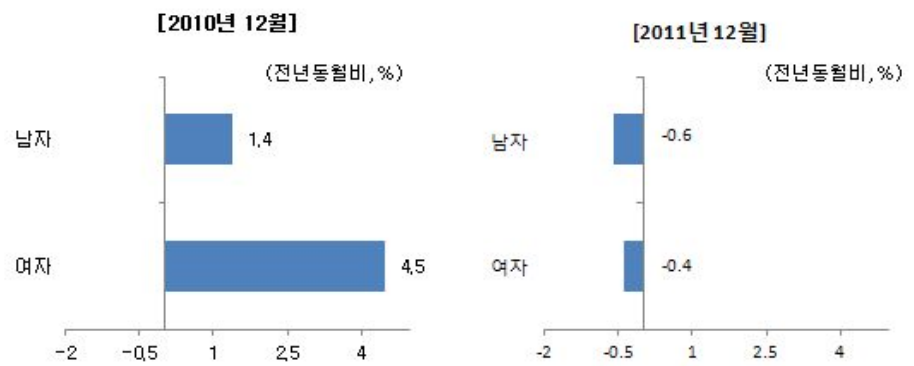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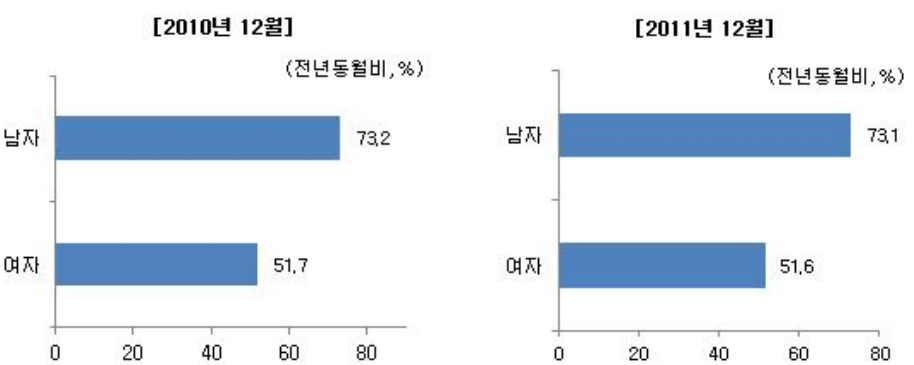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65천명, 여자는 2,2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6%, 여자는 0.4% 각각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1%, 여자는 51.6%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1%p 하락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 · 업 · 자 |

서울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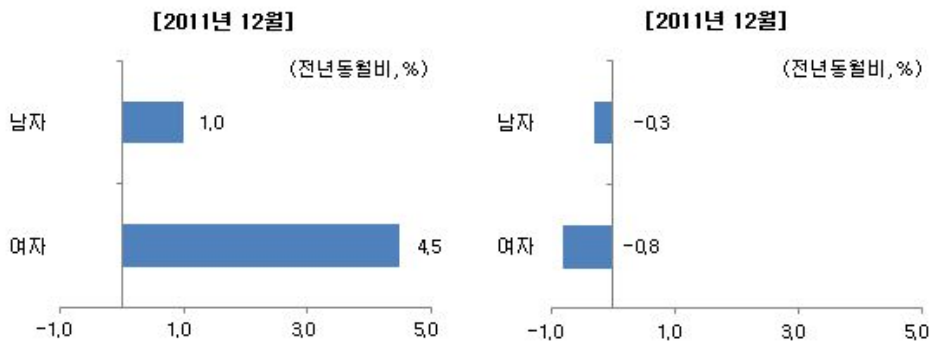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취업자는 4,97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0.5%)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2천명, 여자는 2,1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9천명(-0.3%), 여자는 18천명(-0.8%)이 각각 감소
- 서울과(-0.5%) 전국(1.9%)의 취업자 수는 2.4%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2월 취업자는 2,412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1천명(1.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8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6천명(1.8%) 증가하였고, 여자는 993만9천명으로 18만4천명(1.9%)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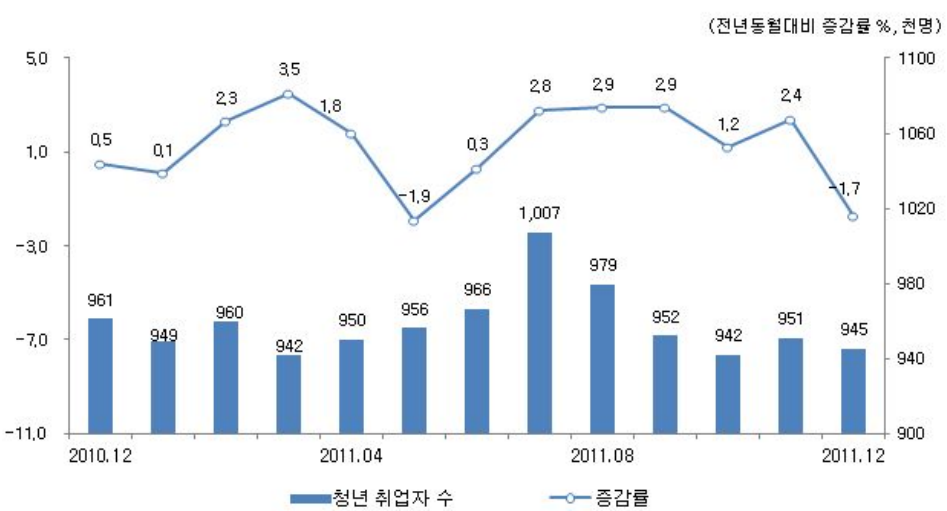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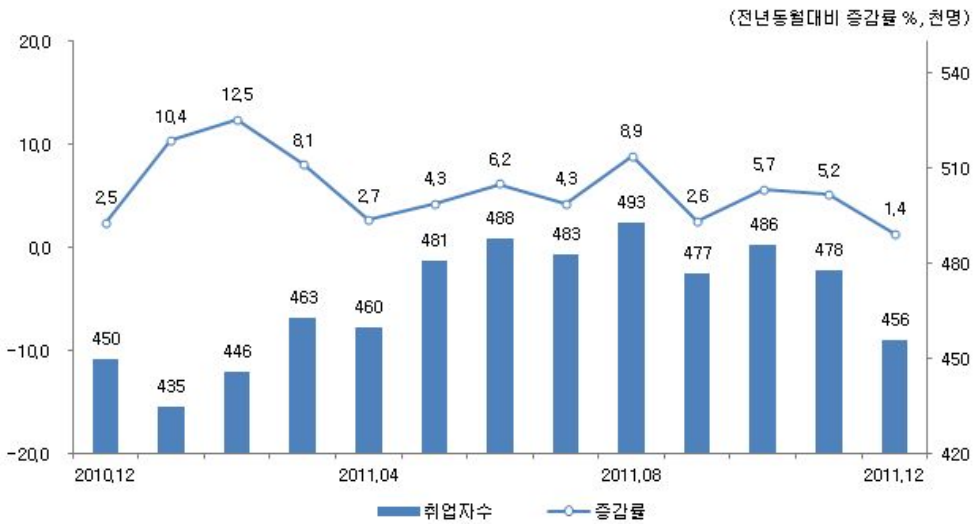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청년층(15세~29세),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12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 하락하여 1달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서울의 12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로 12개월만에 2%대 이하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18.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4천명(1.7%)이 각각 증가
- 건설업 12천명(-3.1%), 도소매·음식숙박업 22천명(-1.6%), 제조업 4천명(-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천명(-0.3%)은 각각 감소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증가, 그 외 나머지 종사자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108천명(11.8%)이 증가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64천명(-4.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4천명(-4.5%), 서비스·판매종사자 47천명(-3.8%), 관리자·전문가 24천명(-1.6%)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2.7%), 무급가족종사자는 18천명(-10.0%)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30천명(5.9%)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48천명(-4.0%), 일용근로자는 65천명(-14.5%)이 각각 감소

| 고·용·률·및·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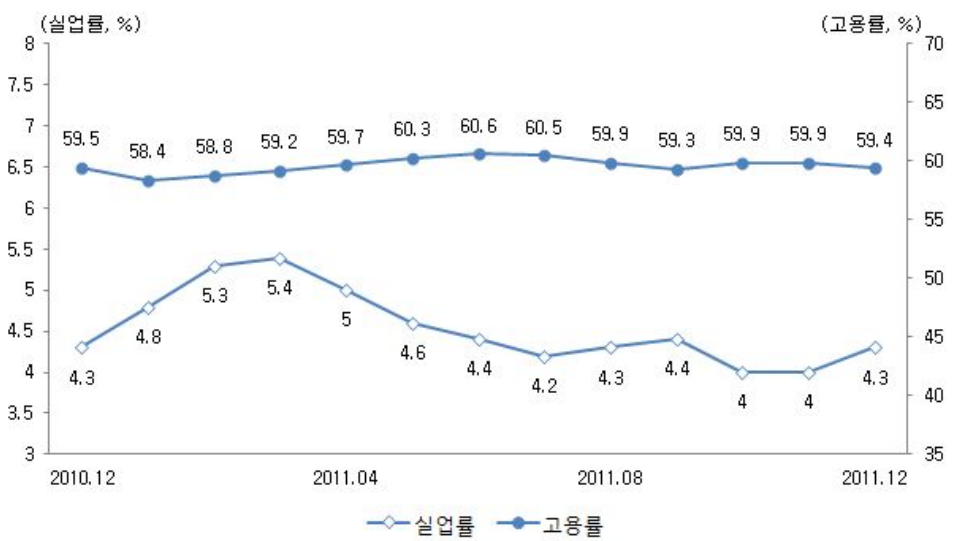
서울의 12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하락, 실업률 보합세

■ 서울의 12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8%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49.5%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 서울시 고용률은 59.4%로 전국(58.5%)에 비해 0.9%p 높게 나타났음

■ 서울의 1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보합

- 12월 실업자는 2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3%)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6.3%)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89천명으로 8천명(10.4%)이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과 보합, 전국(3.0%)에 비하여 1.3%p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여자는 4.0%로 0.4%p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가 |

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전도시:105.2%, 2010년=100.0)으로 전월대비 0.3%(전도시:0.4%), 전년동월대비 3.9%(전도시:4.2%) 각각 상승
-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5%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5.2%, 공공서비스 1.1%, 개인서비스 3.4% 각각 상승

■ 서울의 12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상승, 신선식품지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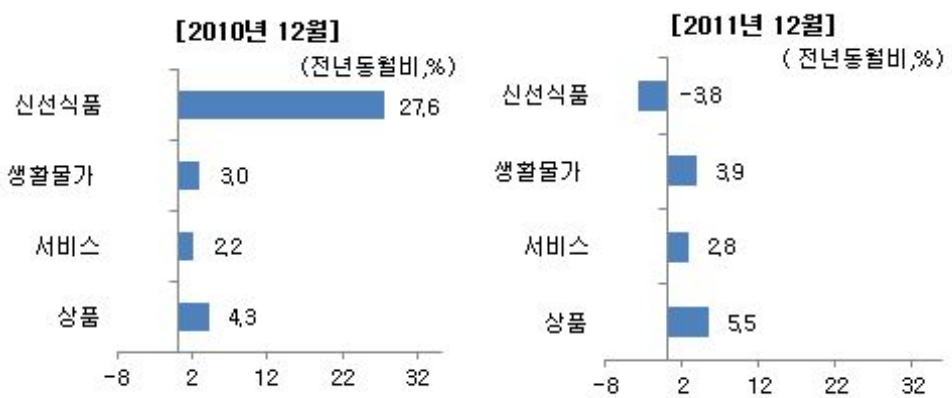
- 소비자들의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9%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8%하락

■ 전국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0년=100)로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4.2% 상승으로 4개월 만에 다시 4%대 유지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광주, 울산 등 9개 시도는 0.2~0.3%씩 상승하였고, 부산, 인천 등 7개 시도는 각각 0.4%씩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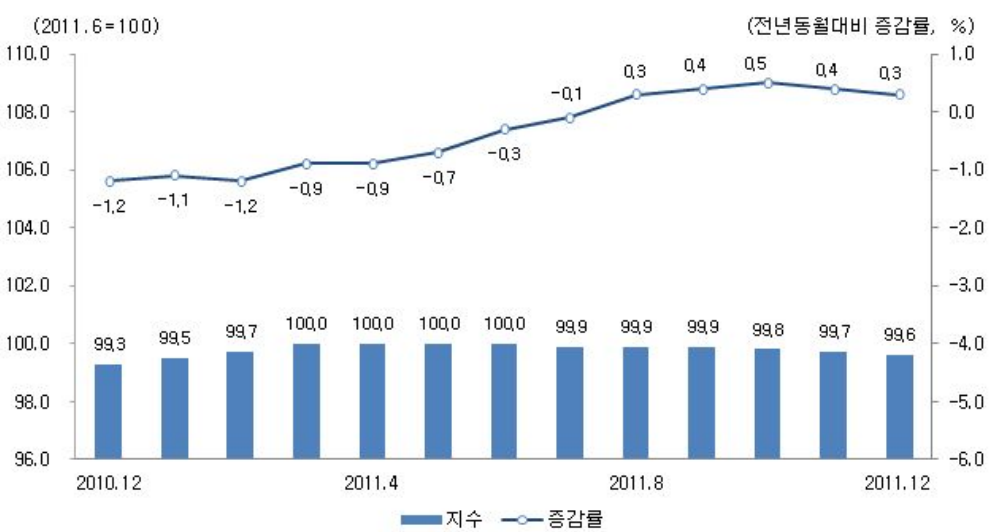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모두 0.1% 하락하여 2개월 연속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보합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0.2%, 0.1% 하락하며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을 주도

■ 전국의 1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둔화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경기불안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0.2% 상승
- 수도권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전월대비 0.3%, 0.6%로 상승세 지속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용산구와 노원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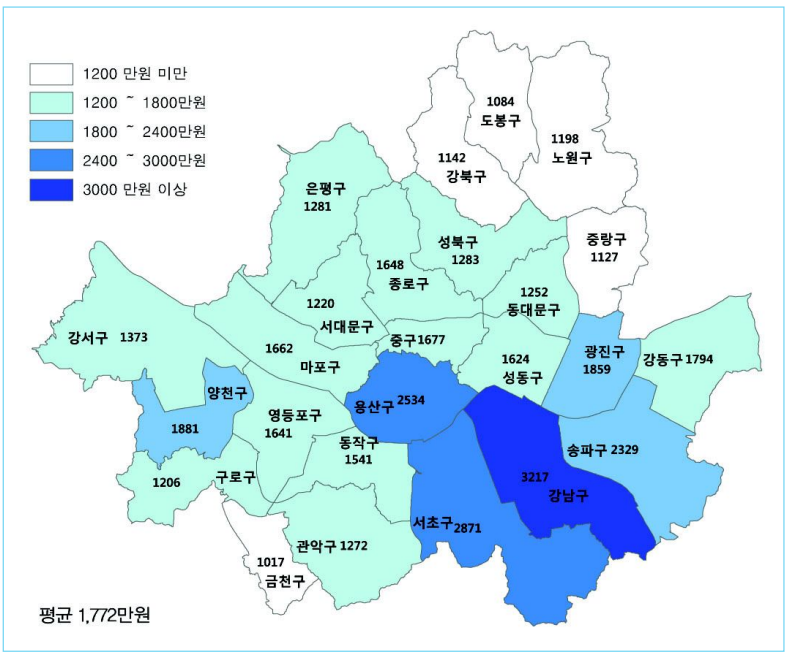
- 종로구는 대학로 인근 혜화동과 이화동의 단독 및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며 전월대비 0.1% 상승
- 용산구는 계절적 비수기 및 매수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이촌동의 대형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6%하락
- 노원구는 매수세가 부족한 가운데 월계동, 상계동 등에서 매물이 적체되면 전월대비 0.2% 하락

■ 강남지역은 계절적 비수기, 부동산 경기 침제 지속으로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동구와 양천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하락

- 강동구는 고덕주공과 둔촌주공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단지들의 중·대형 매물이 적체되며 전월대비 0.3% 하락
- 양천구는 실수요자들의 매수시장 관망세 확대로 거래가 부진해지면서 전월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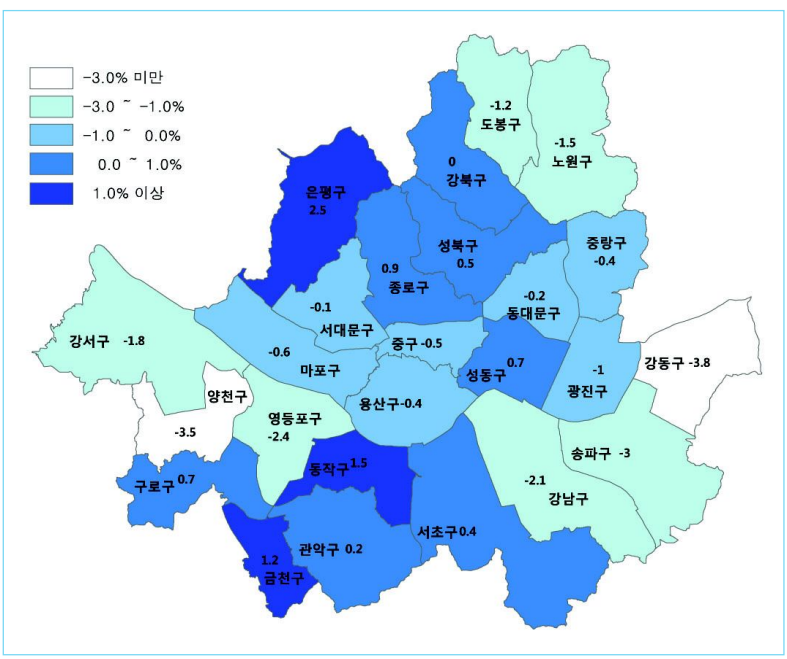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72.3만원으로 전월대비(1781.2원)대비 하락하여 10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 모두 전월대비 하락하고 강남구(3,217만원), 서초구(2,871만원), 용산구(2,534만원), 송파구(2,329만원), 양천구(1,881만원), 광진구(1,859만원), 강동구(1,79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7만원), 도봉구(1,084만원), 중랑구(1,127만원), 강북구(1,14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으로 전환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은 하락으로 전환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1%, 0.2% 하락으로 전환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2% 하락으로 전환되고 연립주택도 보합을 나타냈으나 단독주택은 0.1% 상승

■ 전국의 12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어 전월대비 0.1% 상승을 보이고,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전월대비 각각 0.2%, 0.5% 상승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성북구와 도봉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 은평구는 은평뉴타운 지역인 진관동과 역세권 인근단지들의 물량부족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 성북구는 전세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길음 뉴타운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하락

■ 강남지역은 강동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강남구, 동작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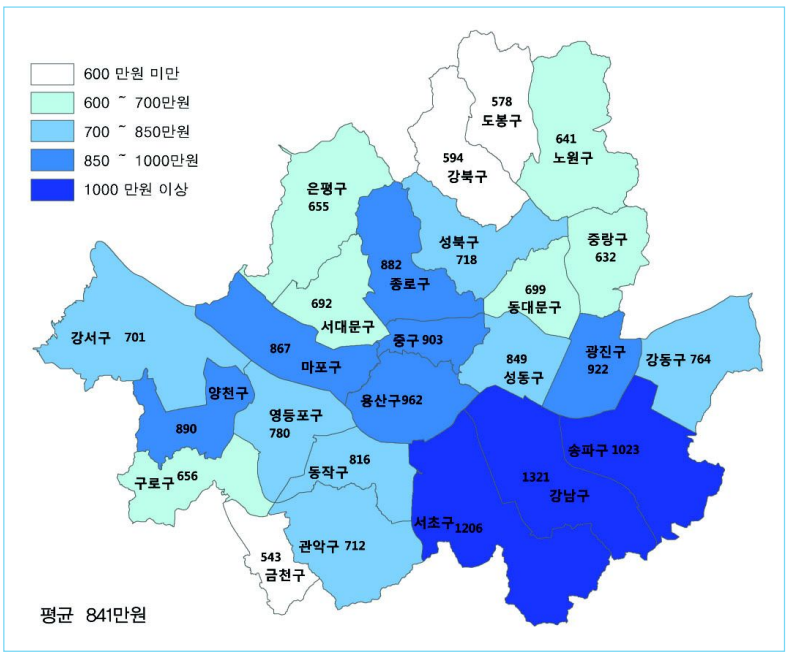
- 강동구는 내년 초 고덕시영 아파트의 이주예정으로 인해 이주자들의 전세수요가 늘어나며 전월대비 0.1% 상승
- 강남구는 계절적 비수기로 전세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개포동, 대치동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하락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1.34만원으로 전월대비(840.98만원) 소폭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321만원), 서초구(1,206만원), 송파구(1,023만원), 용산구(962만원), 광진구(922만원), 중구(903만원), 양천구(890만원), 종로구(882만원), 마포구(867만원), 성동구(84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43만원), 도봉구(578만원), 강북구(594만원), 중랑구(63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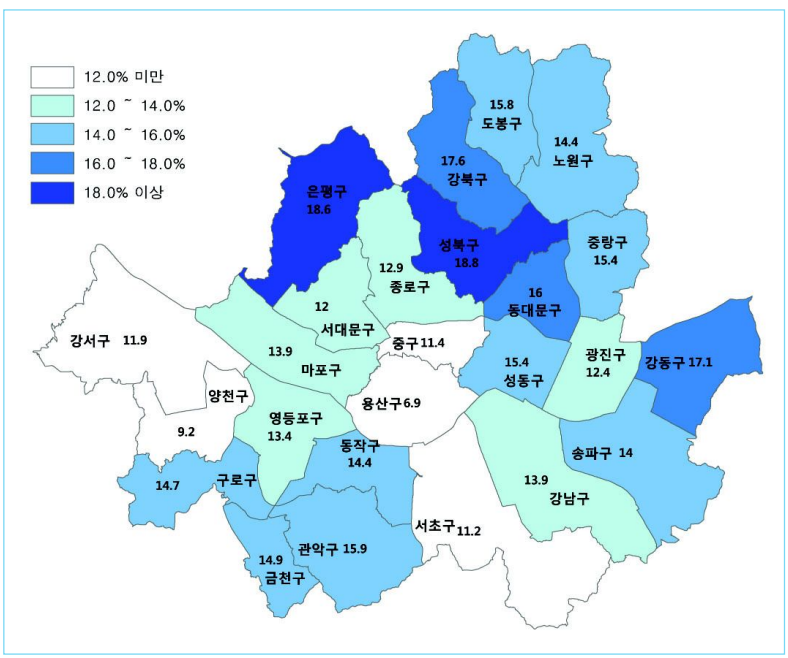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전월대비 보합

- 11월 중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0.8%로 전월과 동일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60.1% 보다 9.3%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9.5%p)보다 좁혀짐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53.5%, 강남 48.6%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상승세 지속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서울의 11월 은행의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 축소

■ 1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11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5조 4,72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1,788억원(0.92%)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61조 2,036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4조 2,685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2%, 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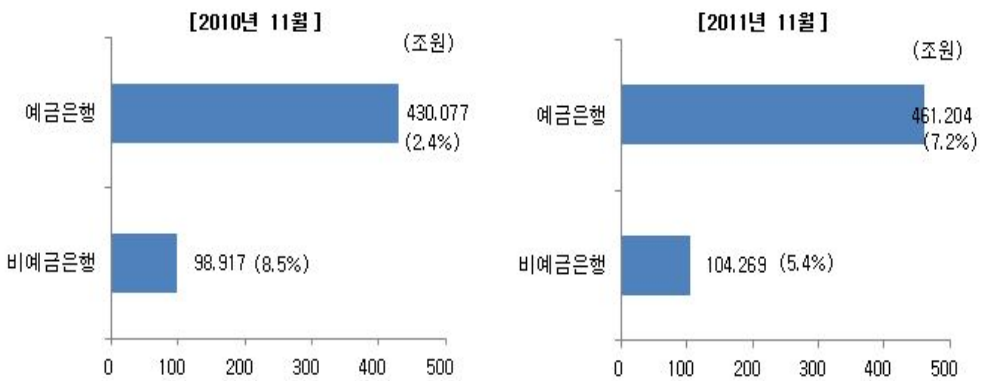
■ 1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10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13조 8,973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8,375억원(0.56%)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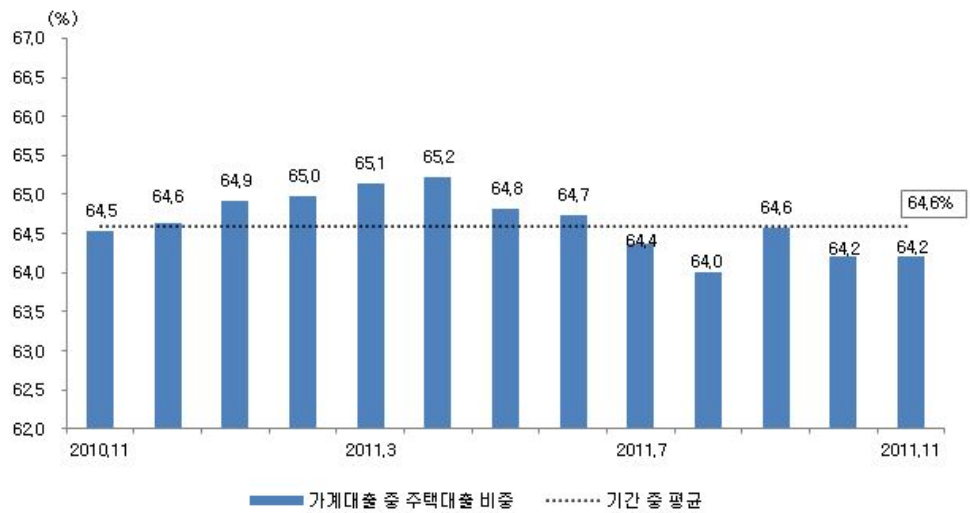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규모 축소

- 1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815억원으로 전월대비 288억원(0.2%)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3조 238억원(64.2%)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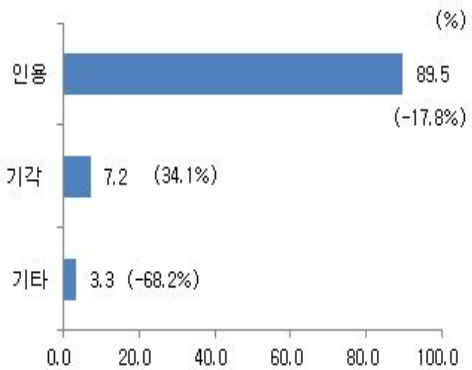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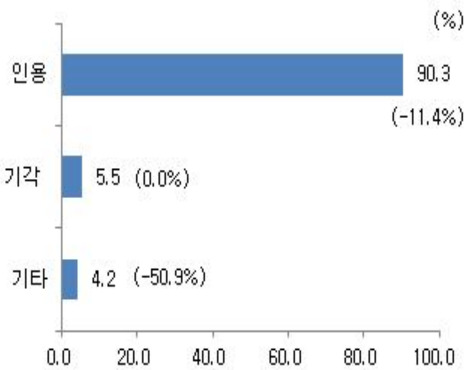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1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315명으로 전월대비 12.6% 증가,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7.2%로 전월대비 50.9%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5.5%로 전월대비 13.7%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12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12월 면책 처리현황

| 신·설·및·부·도·법·인·동·향 |

서울의 12월 제조업 신설법인 큰 폭으로 증가

■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모든 업종 신설법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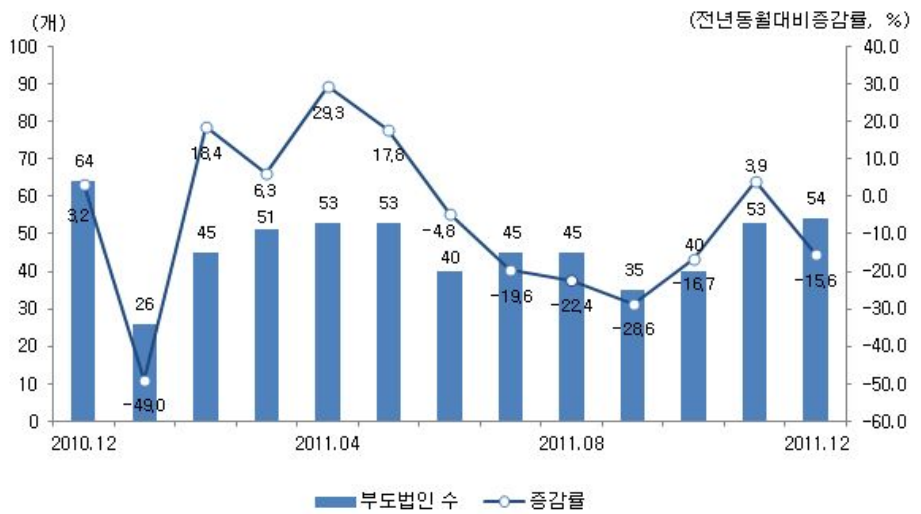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181개로 전월대비 20.9%(377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2.5%(243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49.1%(11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건설 및 설비업이 각각 전월대비 17.6%(256개), 9.0%(10개) 증가

■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1개 증가,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부도법인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4개로 전월대비 1.9%(1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5.6%(10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41.2% (7개)감소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은 각각 전월대비 41.7%(5개), 14.3%(3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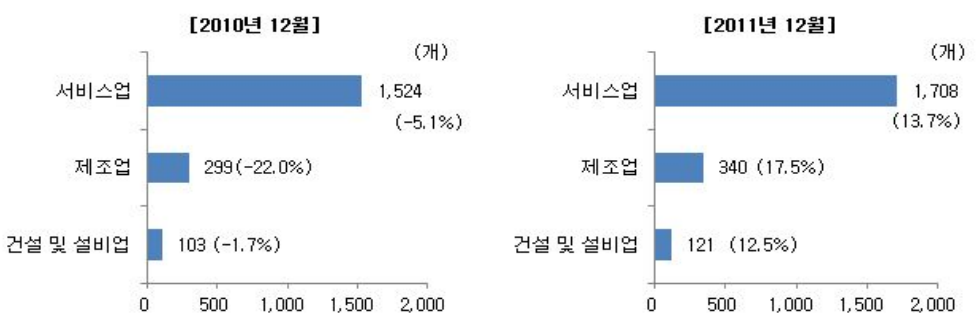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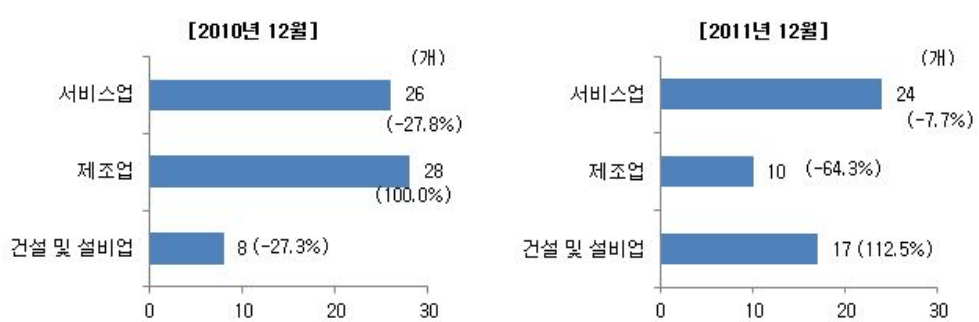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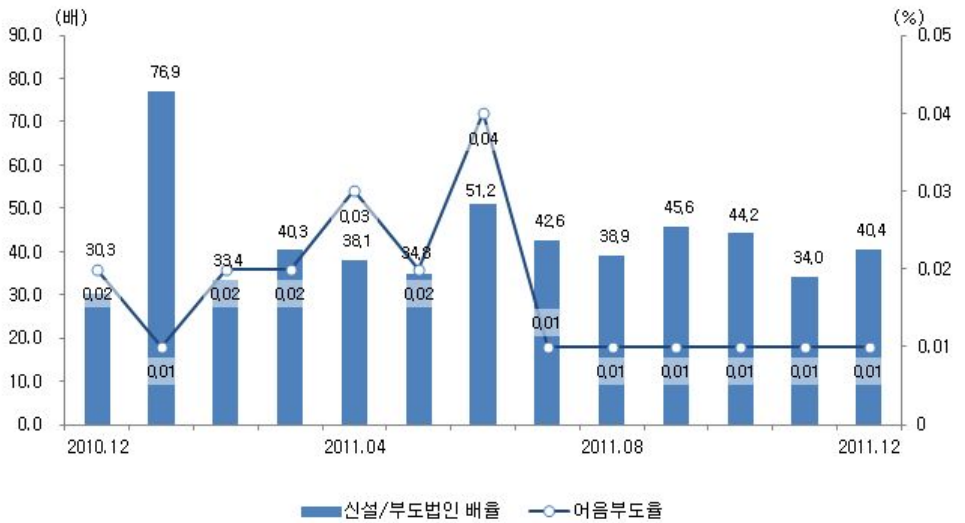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3개만에 증가세로 전환

- 1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동일한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0.4배로 전월(34.0배)보다 상승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12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전월대비 큰폭 감소

■ 보증지원 금액과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큰폭으로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2월 중 2,167건, 55,471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32.3% 감소하였고,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각각 전월대비 37.5%, 7.7% 감소
-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31.9% 감소한 반면 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각각 20.5%, 76.8%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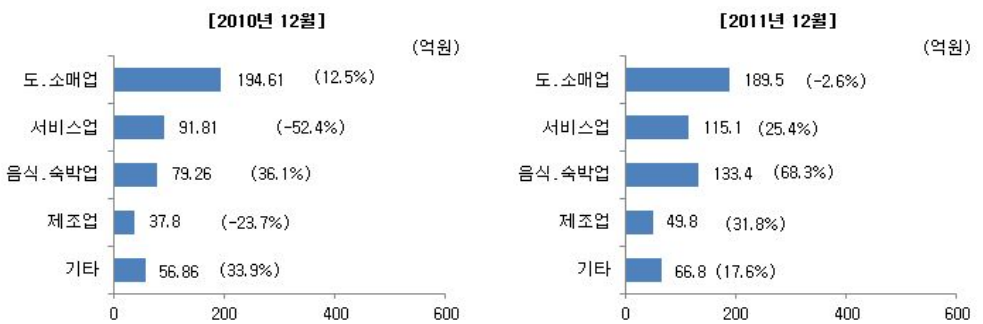
■ 제조업 지원 금액 전월대비 상승

- 12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0%로 전월(7.5%)대비 1.5%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4.2%로 전월(39.6%)대비 5.4%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음식·숙박업종은 26.5%로 전월(23.5%)대비 3.0%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3.4%로 전월(35.8%)대비 2.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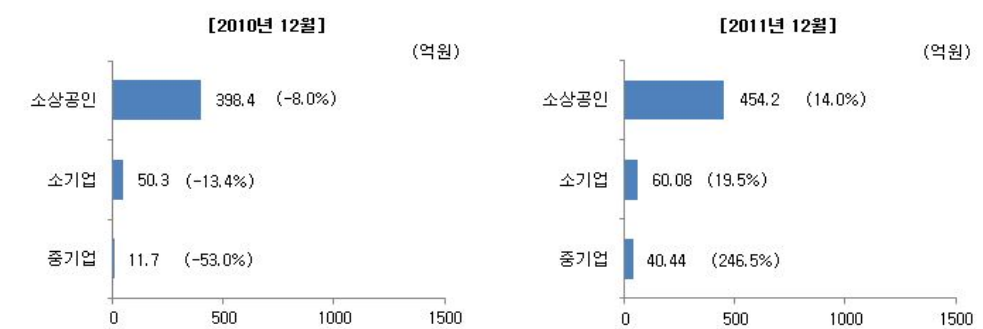
■ 중기업 지원 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1.9%로 전월대비 1.8%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1.1%로 전월대비 1.7%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0.8%로 전월대비 2.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4.9%로 전월대비 0.5%p 증가하였고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7.3%, 건수기준으로는 4.0%로 전월대비 각각 0.4%p, 1.3%p 감소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출·입·동·향 |

서울의 12월 수출 합성수지 중심으로 증가

■ 서울의 12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크게 둔화

-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3.7% 증가한 56.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98억 달러 기록
-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한 489.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한 455.2억 달러 기록

■ 서울의 12월 수출 1순위는 합성수지,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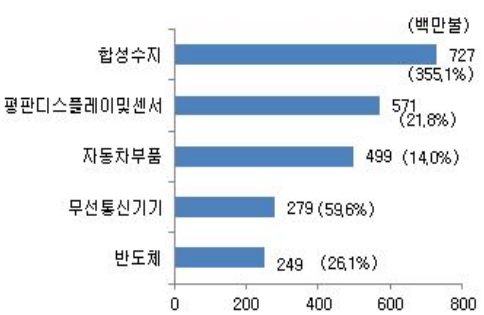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합성수지가 727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810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자동차 등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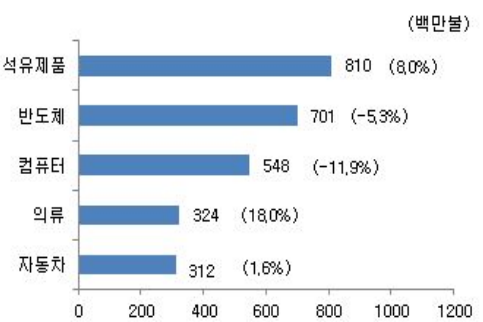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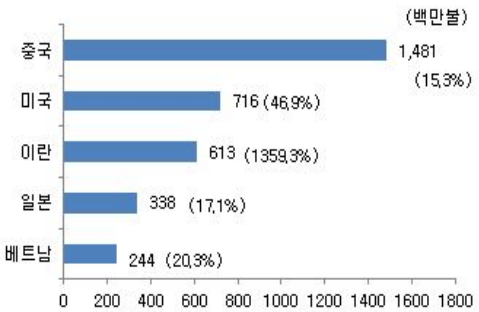
〈그림〉 1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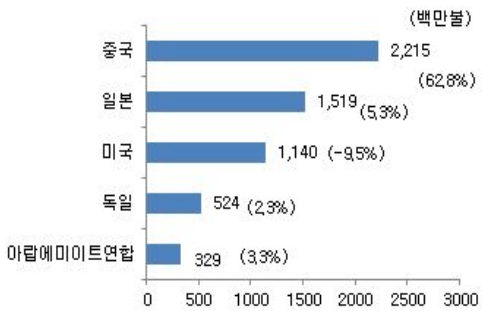


〈그림〉 1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12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한 1,461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이란, 일본, 베트남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62.8% 증가한 2,215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아랍에미이트연합 순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12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715,886**	**46.9**	**합계**	**1,139,988**	**-9.5**
	1	무선통신기기	163,687	267	항공기및부품	83,778	-40.7
	2	자동차부품	127,316	39.4	육류	51,308	-8.7
	3	고무제품	83,984	74.9	전자응용기기	48,920	11.9
싱가포르		**합계**	**79,915**	**38.6**	**합계**	**223,515**	**-22.6**
	1	항공기및부품	21,217	-	반도체	97,469	-26.1
	2	반도체	20,801	29.7	컴퓨터	39,888	-12.5
	3	전자응용기기	3,413	-13.4	기초유분	11,765	69.9
페루		**합계**	**6,280**	**-6.9**	**합계**	**2,958**	**86.3**
	1	합성수지	1,264	30.5	동제품	1,237	-
	2	고무제품	1,179	640.1	곡실류	715	3,398.0
	3	합성고무	759	36.7	의류	384	-15.5
칠레		**합계**	**10,892**	**18.7**	**합계**	**43,164**	**-8.8**
	1	자동차	4,022	113.8	동제품	17,277	-8.1
	2	고무제품	1,850	31.4	육류	7,887	-0.4
	3	합성수지	1,008	79.6	제지원료	6,283	-26.7
인도		**합계**	**95,119**	**-2.1**	**합계**	**244,612**	**0.3**
	1	합성고무	21,901	-6.6	석유제품	170,202	12
	2	자동차부품	14,539	-13.9	천연섬유사	10,518	-57.3
	3	합성수지	8,165	29.6	기초유분	9,191	-32.5